

numbers 제 103호



주요 내용

2021.07.09

1. 이번 주 주제 :

- 한국 사회 갈등,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젠더 갈등' 심각성 점점 높아져!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성인 3명 중 1명 이상(36%), 지난 1년간 성관계 갖지 않아!
- 2020년 60세 이상 여성의 황혼 이혼 건수, 10년 새 큰 폭(3.1배)으로 늘어!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사회 통계

한국 사회 갈등,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젠더 갈등’ 심각성 점점 높아져!

최근 들어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성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단어를 뜻하는 ‘남혐’(남자 혐오), ‘여혐’(여자 혐오)이란 말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고, 언론이 그에 발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젠더 이슈와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올해 들어 우리 사회 내 젠더 갈등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건 분명하다.

특히 젠더 관련 조사를 살펴보니 2030세대가 젠더 이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젠더 간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왜 그럴까?

어느 조사도 명쾌하게 답을 내지는 못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 이번 호에서 최대한 여러 조사의 결과를 종합해, 조심스럽게 몇 가지로 가능해 보았는데, 취업과 노력/희생에 따른 보상 등에 특히 젠더 갈등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정’ 과 연관이 깊다.

이렇듯 지금까지 사회 갈등 요인과 다른 양상으로써 2030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젠더 갈등은 사회 갈등 요인으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2030세대의 인식’을 몇 차례 리포트 했었다(88호, 98호). 연장선에서 이번 [넘버즈] 103호는 2030세대의 젠더 이슈에 따른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 교회가 사회 갈등의 새로운 유형인 젠더 이슈와 갈등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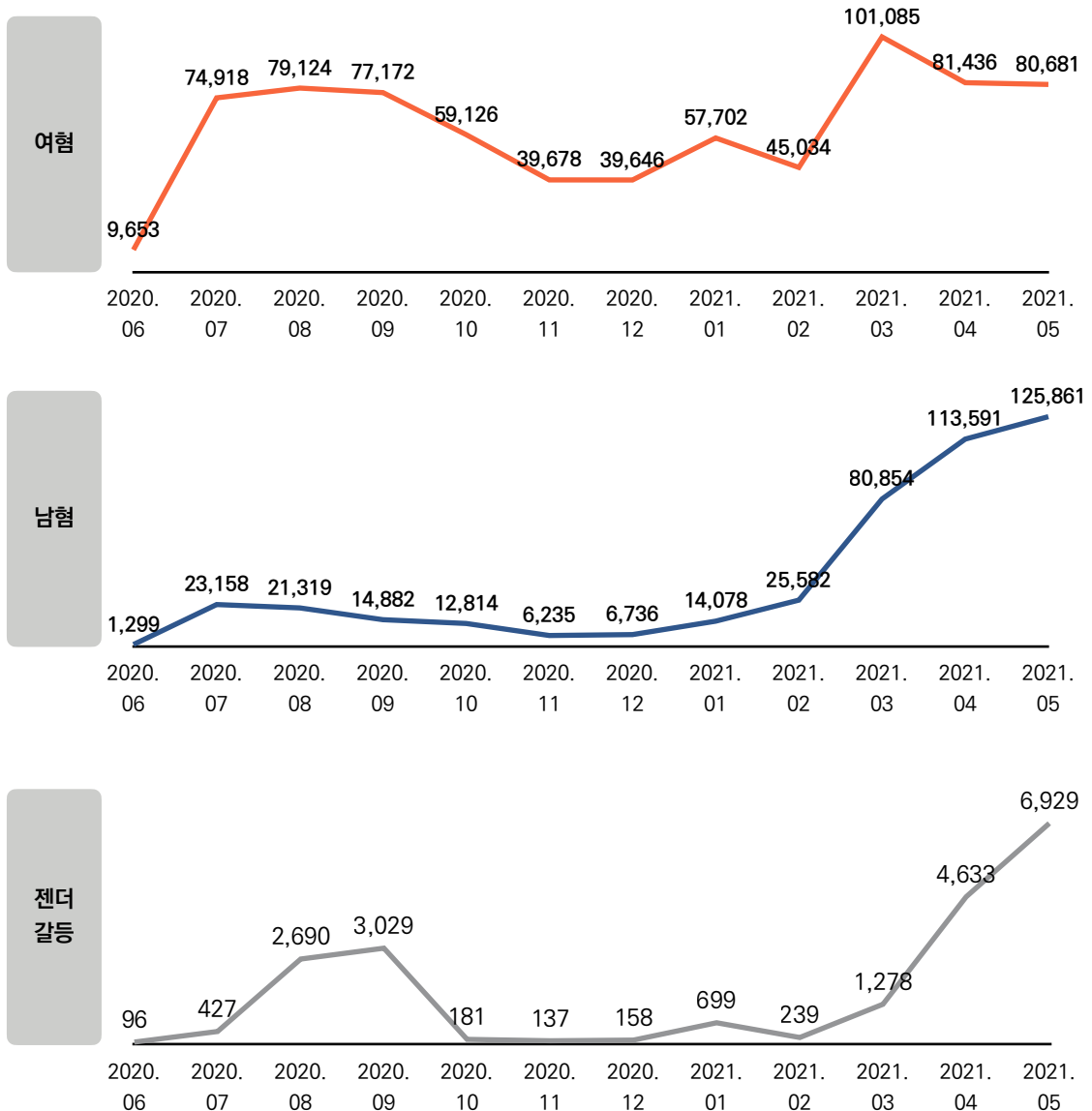
1



빅데이터 분석, '젠더 관련 단어 언급량' 2021년 상반기부터 급격히 상승!

- 지난 1년 간 젠더 관련 단어 중, '여혐, 남혐, 젠더 갈등' 키워드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초 3-4월의 재보궐 선거 시점과 맞물리면서 급격하게 언급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위 세 개 키워드 중 여성 혐오를 일컫는 '여혐'의 최근 1년간 언급량이 789,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혐 언급량의 40% 정도 수준으로 '남혐'(남성 혐오)이 언급됐다.
- 월 검색량으로는 '남혐'이 5월 125,861건으로 최근 들어 젠더 이슈가 증폭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 젠더 갈등 관련 언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온라인에서 젠더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지난 1년간 젠더 관련 3개 키워드 버즈량(언급량)



*키워드 분석 기간 : 2020년 6월~2021년 5월까지 1년 간,

분석 키워드: '젠더 갈등, 여혐, 남혐'

분석 대상 : 국내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 트위터 피드의 제목, 내용을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썬트렌드(<https://some.co.kr>) 분석을 통해 본 연구소가 정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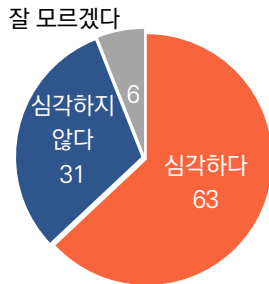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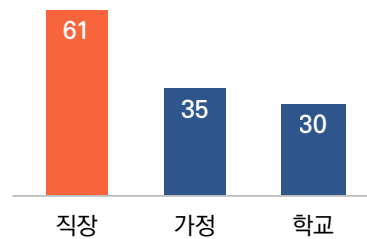
우리 사회, 젠더 갈등 '심각하다' 63%

-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에 대해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젠더 갈등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 특히 성 차별이 심각한 곳으로 '직장' 61%, '가정' 35%, '학교' 30%로 응답해, 주로 직장/직무 관련 해 젠더 이슈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젠더 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전국민) (%)



[그림] 장소별 성 차별이 '심각하다'(매우+약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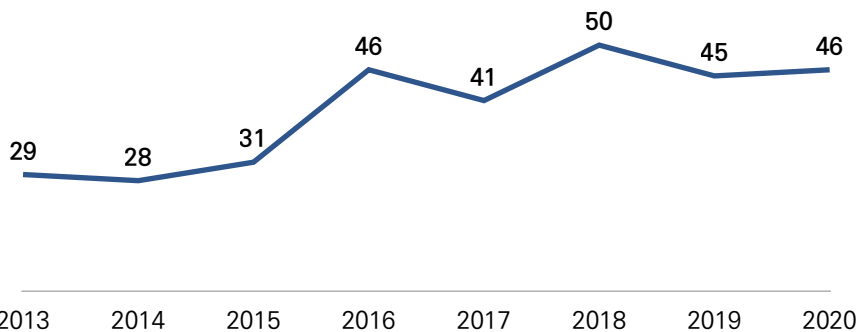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우리 사회 젠더 문제의 진단과 해결 노력', 2021.03.03.(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2.05. - 02.08)
 **4점 척도로 '심각하다'는 '매우+대체로', '심각하지 않다'는 '별로+전혀 수치임

● '젠더 갈등 심각하다', 2013년 29% → 2020년 46%로 크게 높아져!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2013년 '남녀 갈등 심각하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는데, 매해 상승해 2020년 46%로 크게 증가했다.
- 연도별 '남녀 갈등 심각하다' 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 젠더 갈등이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 중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을 시사한다.

[그림] 연도별 남녀 갈등 '심각하다' 응답률(매우+약간) (%)



*자료 출처: 한국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0 제 8차 한국인의 공공갈등 인식 조사', 2021.1.18.(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2.24.-12.28)

**5점 척도 질문으로 '심각하다'는 '매우+약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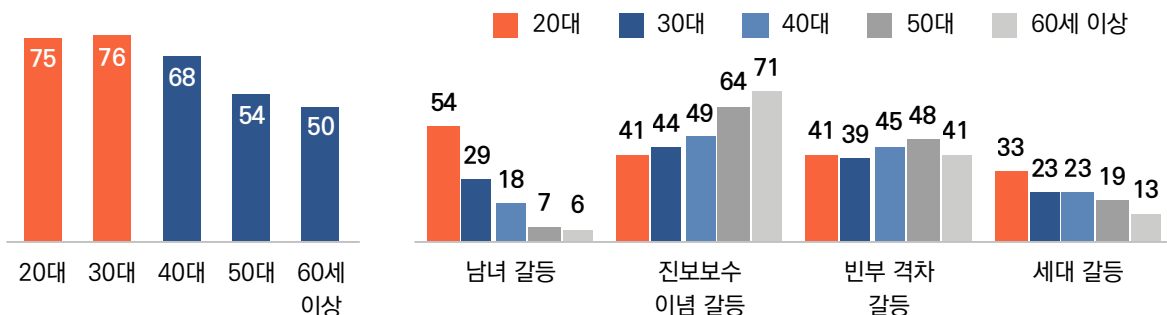
3



특히 20대, 젠더 갈등의 심각성 매우 크게 느껴!

- 젠더 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연령에 따라 다른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세 이상층'은 50%였고, '20대'는 그보다 높은 75%, '30대'는 76%였다. 2030세대가 젠더 갈등의 심각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갈등의 심각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을 서울 시민에게 질문했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진보-보수 이념 갈등'을 응답했는데, 유독 20대만 '남녀 갈등'을 1위로 꼽았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갈등 요소가 변화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그림] 연령별 성별 갈등 '심각하다'*(%) [그림] 향후 갈등의 심각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 (상위 4위, 연령별, 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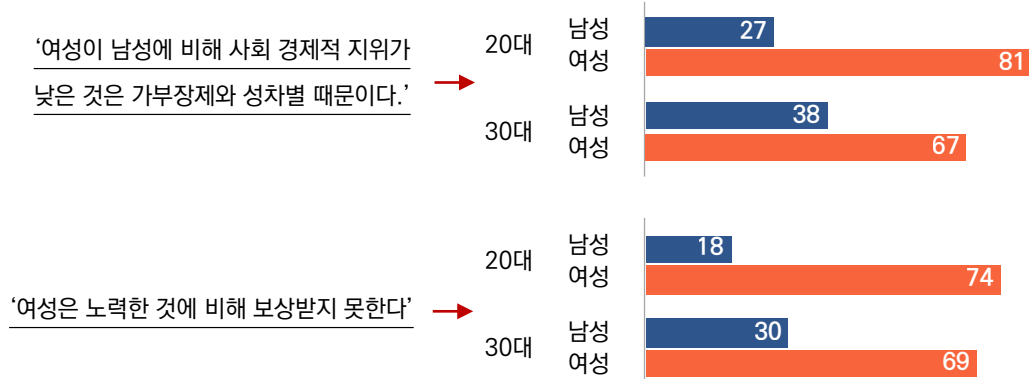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우리 사회 젠더 문제의 진단과 해결 노력', 2021.03.03.(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2.05. - 02.08, 4점 척도로 '심각하다'는 '매우+대체로', '심각하지 않다'는 '별로+전혀 수치임)
 **자료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시 사회갈등 이슈 진단과 정책 시사점', 2021.03.29.(서울 거주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9.16.~09.24)

● '성차별 때문에 손해 본다'는 의견, 2030 남녀 간 인식 차 매우 커!

- 그렇다면 왜 2030 세대가 젠더 갈등에 민감한 것일까? 그것은 남녀 간의 사회경제적 차이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것은 가부장제와 성차별 때문이다'는 의견에 '2030 여성'은 대부분은 긍정하는 반면 '2030 남성'은 대부분 부정하고 있어서 젠더 간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또한 '여성은 노력한 것에 비해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견 역시 '2030 여성'은 동의하는데 비해 '2030 남성'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림] 남녀 간 사회 경제적 차이에 대한 인식('동의한다'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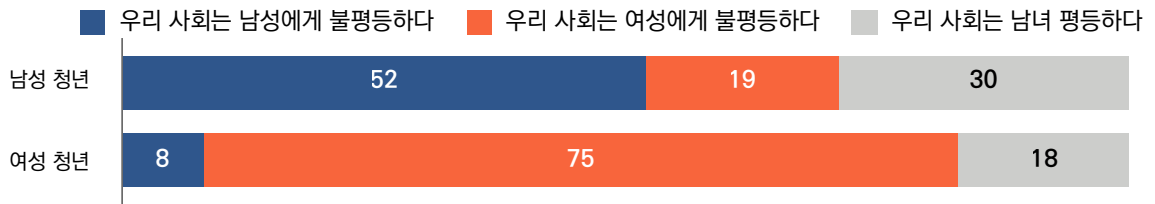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일보-한국리서치 공동, '남성 차별 존재한다는 이남자... 남성 우월주의 오락남과는 달랐다', 2021.06.25.(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 온라인 조사, 2021.05.25.~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321020001086>

● 청년 세대(만15~39세) 남녀 모두, 자신의 성(性)이 더 불평등해!

- 지난 3월에 발표된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청년’(만 15~39세)의 52%가 우리 사회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청년’은 8%만 응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 반대로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항목에 대해 ‘여성 청년’의 75%가 응답한 반면 ‘남성 청년’은 19%로 응답해 역시 젠더 간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 각자 이 사회가 자신의 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높은 반면, 다른 성의 불평등 의견에는 낮게 응답하는 추세가 같았다. 즉 서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 청년(만 15~39세)의 성 평등에 대한 인식(남성 vs 여성) (%)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청년의 생애 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결과 발표', 2021.3.10.(전국 만 15~39세 남녀 10,101명, 온라인 조사, 2020.10.17.-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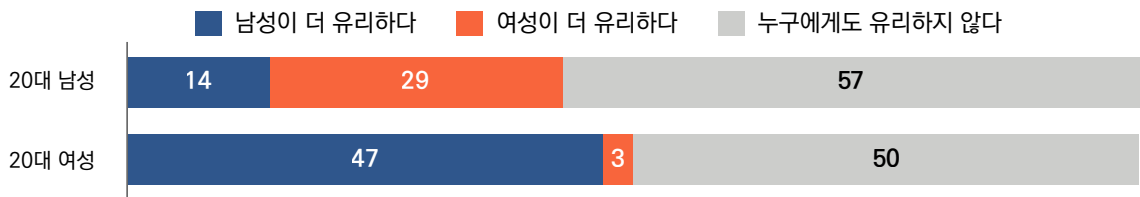
4



젠더 갈등 주요 요인 1 ‘취업 이슈!’

- 2030세대 특히 20대는 취업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취업에 있어 누구의 성이 유리한지를 질문한 결과, 각자 자신의 성이 취업에 있어 상대 성보다 ‘더 불리하다’는 인식이 컸다.

[그림] 자신의 성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의견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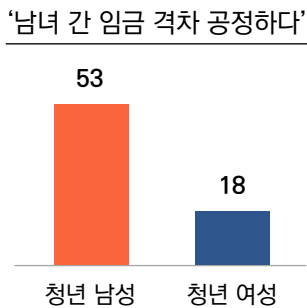


*자료 출처: 서울신문, 2021.6.21., '출산·병역 이해하지만... 취업문 앞에선 "우리가 손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07015018>

● 젠더 갈등 주요 요인 2 : 임금 격차

- 남녀 간 임금 격차의 공정성에 대해 청년의 젠더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남성 청년층(20-34세)'은 53%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두는 것이 '공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청년층'은 18%로 응답해 젠더 간 35%p 차이를 보였다.
- 남녀의 임금 격차의 공정성에 대한 청년층(20-34세)의 남녀 간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젠더 갈등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그림] 남녀 간 임금 격차에 대한 인식(20~34세 청년 대상)
(%)



*자료 출처 :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 3', 2021.6.28.(전국 만 20~34세, 50~59세 남녀 각 600명, 온라인 조사, 2021. 5.10~1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7567>

**4점 척도로 '공정하다'는 '매우+대체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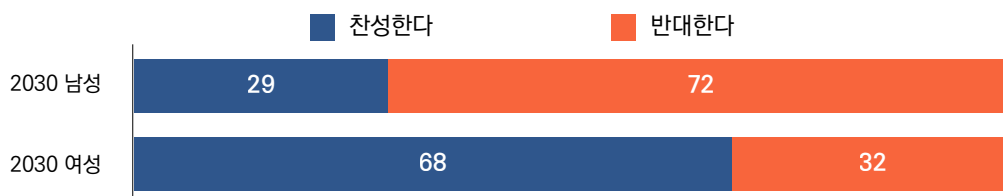
5



2030세대 젠더 이슈, '기계적 균형'은 대립, '지원과 보상'에는 공감, 여성할당제, 남성은 '반대', 여성은 '찬성'!

- 사회 각 분야의 자리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인 '여성할당제'에 대해 2030세대의 젠더 간 인식 또한 다른데, 여성할당제 도입에 '2030세대 남성'의 72%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32%만 반대했다.
- 반면 '2030세대 여성'의 68%는 여성할당제 도입에 '찬성한다'(남성 29%만 찬성)고 응답했다. 각각의 찬성과 반대 의견 차이가 2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 이처럼 남녀의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대립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여성할당제에 대한 찬반 의견(2030세대)



*자료 출처 : 국민일보, 2021.06.24., '무스펙 폐미가 1급?, 폐미가 어때서.. 폭주하는 젠더 갈등' (전국 18~3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5.9.~1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980999&code=61121111&stg=ws_real

**4점 척도로 '찬성'은 '매우+찬성한다', '반대'는 '매우+ 반대하는 편' 수치임

● ‘경력단절 여성 지원’, ‘남성 군 복무 보상’에는 남성/여성 모두 동의

- 2030세대는 경력 단절 여성 지원이나 남성 군복무 보상에 대해서는 다른 성에 대해 유리한 정책 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희생이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성별과 관계 없이 지원과 보상을 하는 것에 거부감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2030세대가 젠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사회적 보호 필요 시 다른 성을 적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경력단절 여성, 군 복무자 보상에 대한 의견(‘동의한다’ 응답률)



*자료 출처 : 한국일보-한국리서치 공동, ‘남성 차별 존재한다는 이남자... 남성 우물주의 오류남과는 달랐다’, 2021.06.25.(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 온라인 조사, 2021.05.25.-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321020001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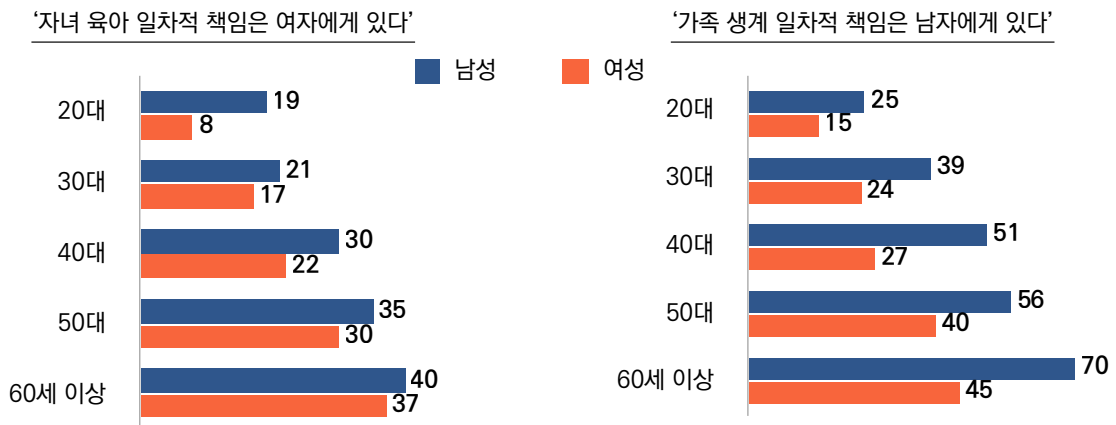
6



2030세대 젠더 인식, 가부장적 인식 약해졌다!

- 2030세대는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는데, ‘자녀 육아의 일차적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는 가부장적 성 역할에 대해 ‘20대 남성’은 19%, ‘20대 여성’은 8%로 남녀 모두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또한 ‘가족 생계의 일차 책임은 남자이다’ 의견 역시 ‘20대 남성’ 25%, ‘20대 여성’ 15%로 낮았다. 반면에 5060대는 기존 성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이 높았다.
- 이는 2030세대에서 전통적인 가부장적 인식이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근 ‘젠더 이슈’가 부각되는 것을 2030세대의 다른 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 반응이라고 쉽게 판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림] 성/연령별 가부장적 성 역할에 대한 의견(‘동의한다’ 응답률)



*자료 출처 : 한국일보-한국리서치 공동, ‘남성 차별 존재한다는 이남자... 남성 우물주의 오류남과는 달랐다’, 2021.06.25.(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 온라인 조사, 2021.05.25.-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321020001086>



시사점

올해 4월 7일에 행해진 재보궐 선거는 야당이 승리한 선거였다. 이 선거가 주목을 받은 것은 그동안 선거에서 약세였던 야당이 승리했다는 결과라는 점도 있지만 이러한 선거 결과를 낳은 주역 가운데 하나가 20대 남자였다는 사실이다. 이번 [넘버즈] 103호에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3쪽) 재보궐 선거를 전후한 3, 4월에 젠더 이슈가 크게 주목을 받은 것도(3쪽) 선거 결과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대 남자의 반 페미니즘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젠더 갈등은 국가 시험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문제 등으로 내재되어 있다가 2016년 강남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표면화되었다. 이 사건이 여성 혐오로 인한 사건이나 또는 단순 정신병에 의한 사건이나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지만(<https://www.asiae.co.kr/article/2021051809444547993>)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여성 혐오라는 이슈가 대두되었다. 그 이후로 20대 남자들이 젠더 이슈에서 반페미니즘적 태도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다¹⁾.

젠더 갈등의 역사가 길지만 그동안 안으로 꿈틀거렸던 젠더 갈등이 선거 결과를 기점으로 표면화되었는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 갈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데 놀라움을 준다(4쪽). 더욱이 20대가 그동안 우리 사회 갈등의 중심이었던 이념 갈등 보다 젠더 갈등의 심각성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5쪽)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젠더 갈등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로 얽혀 있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즉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인 사회에서 갈등은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젠더 갈등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해 관계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불평등한 남녀 관계를 규정했던 전통적 사고는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8쪽), 남녀가 취업, 임금 등과 관련된 문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20대를 중심으로 젠더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6쪽, 7쪽). 가뜰이나 취업이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 취업 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갈등의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젠더 갈등은 무시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교회로 눈을 돌려 보자. 아직 교회는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서 젠더 갈등은 커녕, 여성의 문제를 아예 관심 밖의 주제로 여기는 상황이다.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교회에서 여성의 지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이 의외이기는 하지만 이제 교회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²⁾. 교회의 특정 이슈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대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하여 조용히 교회를 떠난다. 교회는 말없는 이탈자에 주목하지 못했고 그 이유에 대한 자기 성찰이 부족했다. 사회적 갈등이 교회적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반, 교회의 반 이상인 여성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 교회는 여성의 문제와 젠더 갈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

1) 20대 남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 : <20대 남자>, 천관울·정한울 지음(참언론 시사인북, 2019) 이 책은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8개의 질문을 던져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2019년 4~5월 <시사IN>에 3회 연속 커버스토리로 실린 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2) 교회의 페미니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 :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 송인규외(IVP, 2018)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성인 3명 중 1명 이상(36%), 지난 1년간 성관계 갖지 않아!
2. 2020년 60세 이상 여성의 황혼 이혼 건수, 10년 새 큰 폭(3.1배)으로 늘어!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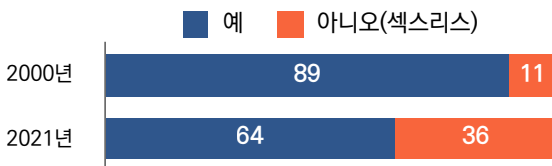
1. 2021 서울 거주자 성(性) 생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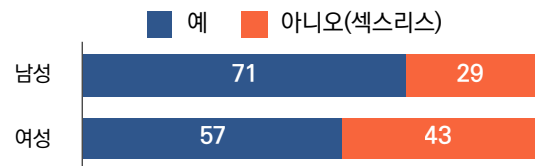
서울 성인 3명 중 1명 이상(36%), 지난 1년간 성관계 갖지 않아!

- 연세대 염유식 교수(사회학)와 최준용 교수(의대 내과학교실)가 최근 발표한 ‘2021 서울 거주자의 성(性) 생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성인의 36%가 지난 1년간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은 것(섹스리스)으로 나타났다.
- 현재의 섹스리스 비율 36%는 20년 전인 2000년의 11%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2010년 미국의 섹스리스 비율(32%)과 비슷하다.
- 섹스리스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43%, 남성 29%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 이렇듯 한국의 섹스리스 비율이 높은 것은 비혼/저출산 풍토와 여유가 없는 삶,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
(만 19세 이상 서울 거주자) (%)



[그림]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성별)
(만 19세 이상 서울 거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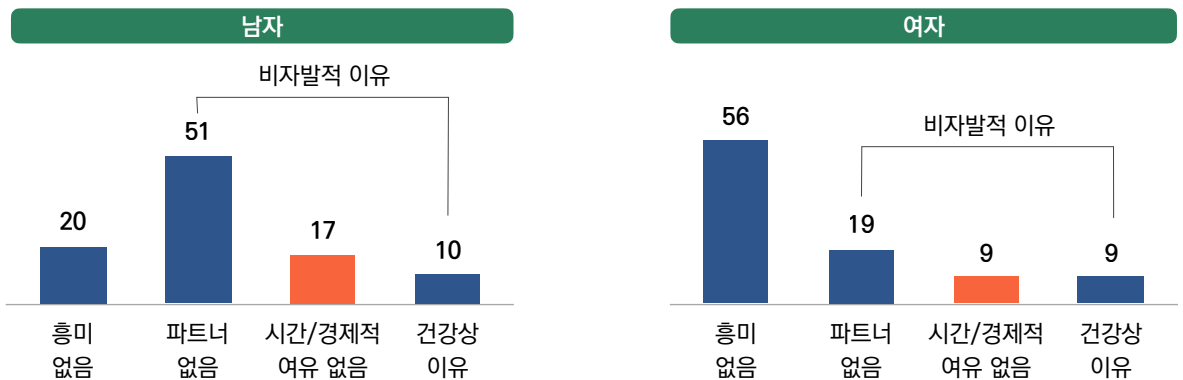


*자료 출처: 연세대 염유식 교수/최준용 교수, '2021 서울 거주자의 성(性)생활 조사', 서울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182명, 온라인 조사, 2021.1~5월 (2000년 자료는 미국 화이자의 '세계 성태도 및 성행동 연구'시 한국인 조사 결과임)

● 섹스리스 이유, 남성은 파트너 없어서 못한다! 여성은 흥미없어 안한다!

- 성관계를 갖지 않은 이유는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흥미가 없다’(20%)는 자발적 이유보다 ‘파트너가 없거나’(51%), ‘시간/경제적인 여유가 없는’(17%) 등의 비자발적 이유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여성은 비자발적 이유보다 ‘흥미 없다’(56%)는 자발적 이유가 가장 컸다.
- 이번 조사에서 소득 수준별로도 섹스리스 비율이 차이가 났는데, 남녀 모두 하위층이 중상층보다 섹스리스 비율이 높아, 시간/비용 등의 여유와 자녀 부양 능력의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성관계를 갖지 않는 이유(성관계 갖지 않은 사람 대상, 상위 4위) (%)



*자료 출처: 연세대 염유식 교수/최준용 교수, '2021 서울 거주자의 성(性)생활 조사', 서울 만19 세 이상 성인남녀 2,182명, 온라인조사, 2021.1~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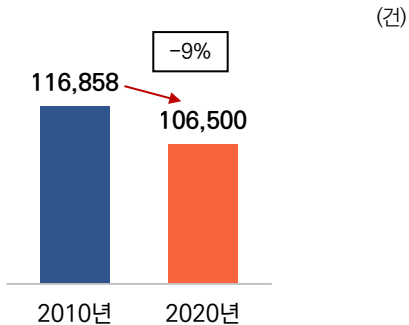
2. 황혼 이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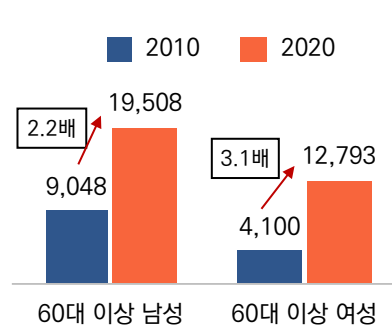
2020년 60세 이상 여성의 황혼 이혼 건수, 10년 새 큰 폭(3.1배)으로 늘어!

- 통계청의 '2020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혼 건수는 106,500건으로 2010년(116,858 건) 대비 9% 감소했다.
- 반면, 황혼 이혼(60세 이상) 건수는 10년 전보다 남성은 2.2배, 여성은 3.1배 각각 늘어났는데, 여성의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이혼 건수(2010년 vs 2020년)



[그림] 성별 황혼 이혼 건수(2010년 vs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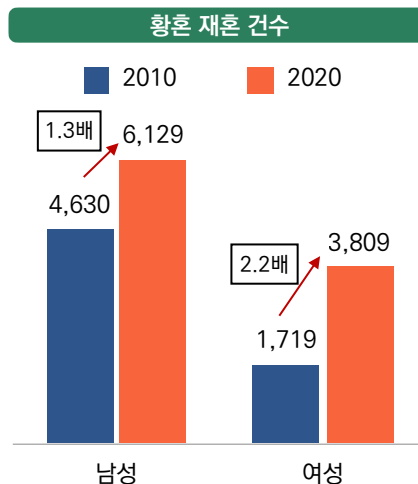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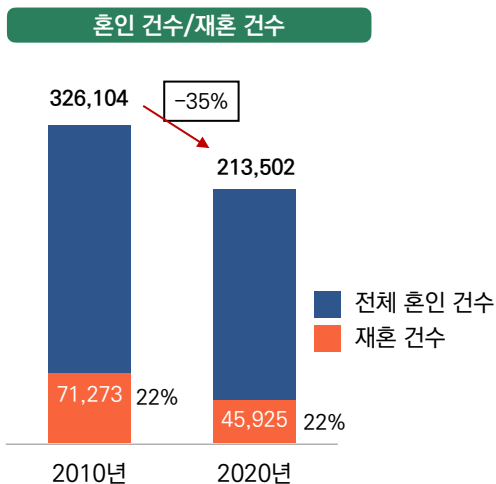
*자료 출처: 통계청, '2020년 혼인-이혼 통계', 2021.03.18

● 2020년 여성의 황혼 재혼(60세 이상) 역시, 10년 새 2.2배 늘어!

- 2020년 혼인 건수(초혼+재혼)은 213,502건으로 2010년 326,104건보다 35%가 줄었다. 그 중 재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재혼)은 전체 혼인 건수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2020년 한 해 황혼 재혼 건수는 2010년 대비 남성은 1.3배, 여성은 2.2배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황혼 이혼 증가도 높지만, 황혼 재혼 증가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혼인/재혼, 황혼 재혼 건수(2010년 vs 2020년)

(건)



*자료 출처: 통계청, '2020년 혼인-이혼 통계', 2021.03.1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 제455호\(2021년 7월 2주\) - 5개 정당별 호감 여부](#)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36호 \(2021년 7월 1주\)- 대선후보, 안전인식](#)

[차기 대통령의 인품](#)

매일경제_2021.06.27.

일반

["세계 코로나 전 '정상 상황' 대비 66% 수준...한국은 18위"](#)

연합뉴스_2021.07.02.

[면접장 멀고, 인턴 못 하고, 생활비 부담...지방대생 '삼중고'](#)

중앙일보_2021.07.03.

[하룻밤에만 80~90통... '절규의 벨소리' 끊이지 않았다](#)

한겨레_2021.07.05.

["고령화, 더는 예측 아니다"...60대 인구, 20대·30대 첫 추월](#)

중앙일보_2021.07.06.

사회
문화

[급증 가계 빚 절반, MZ세대가 받았다...코인폭락·금리상승 '어쩌나'](#)

서울경제_2021.07.08.

[동성가족 '포용할 수 있다41%-포용할 수 없다49%'](#)

폴리뉴스_2021.07.07.

[지방대생·고졸 '차별의 덫' 옥죄는데...차별금지법에서](#)

한겨레_2021.07.06.

[제주도도 강원도도 아니다, 작년 국내 여행 방문지 1위는](#)

중앙일보_2021.07.04.

경제

[올 상반기에만 서울 아파트값 평균 1억원 가깝게 올라...10% ↑](#)

연합뉴스_2021.07.08.

[국내 토지 76%가 개인소유...국민 10명 중 3명은 토지주](#)

머니투데이_2021.07.01.

["최저임금, 인상 자제 62% vs 인상폭 확대 33%"](#)

연합뉴스_2021.07.01.

- 국
제

[전기 쓰는 주민 35%뿐, 수도물은 61%…북한이 인정한 현실](#)

중앙일보_2021.07.03.

[‘NO 재팬’ 불매운동 찾아들고, 한·일 교역 수출 규제 전으로 회복세](#)

중앙일보_2021.07.03.

[한류 드라마에 일본 남성팬도 열광, 일 애니 ‘귀멸의 칼날’ 국내서 흥행 대박](#)

중앙일보_2021.07.03.
- 기
후
/
환
경

[기후위기 대응? 당신의 친환경 생활은 큰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른다](#)

한겨레_2021.07.06.
- 트
렌
드

[4000만원짜리 SUV에도 지갑 척척… “소유보다 경험” 김대리는 新노마드](#)

동아일보_2021.07.06.

기획 기사 - 플라스틱 어스(중앙일보)

- [다회용컵 카페,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기업도 '플라스틱 빼기'\(07.01\)](#)
- [콩단백 비닐, 파스타 빨대, 종이 콜라병…지구가 웃는다\(07.02\)](#)
- [33평 아파트 18채…평생 플라스틱 쓰는 양, 줄인게 이렇다\(07.02\)](#)
- [이게 재활용 안된다고? 그들 손에 달린 플라스틱의 운명\(07.03\)](#)

2주년 후원 이벤트 결과

6월 23일부터 2주간 실시한 목회데이터연구소 2주년 후원 이벤트에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후원하신 분은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합해서 교회 6곳, 기업 1곳, 개인 60명 총 67명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다양한 배경의 후원자께서 함께 만들어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신규 정기 후원자

교회/기업 후원 | 그랑블루, 대전선창교회, 서울드림교회, 올리브교회, 포항대도교회(총 1개 기업/ 4개 교회, 가나다 순)

개인 후원 | 구정오, 김동하, 김상로, 김연진, 김지한, 류선자, 박상윤, 박지훈, 박찬주, 방승기, 서재승, 서해현, 석진호, 선원규, 심기식, 우애라, 윤동하, 윤여민, 이달훈, 이삼열,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은라, 이일영, 이재열, 이정아, 이지형, 이창현, 이효택, 정부활, 정용철, 정준, 조병길, 조의환, 조준환, 지중배, 차용현, 최명영, 최준,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황태기(총 44분, 가나다 순)

신규 일시 후원자

교회 후원 | 광림교회, 탑동감리교회(총 2개 교회, 가나다 순)

개인 후원 | 고현권, 구영생, 김석철, 김성민, 박영호, 박종철, 박종현, 박형철, 백인범, 성창민, 양수민, 이현장부식, 주학선, 진범수, 최상도(총 16분, 가나다순)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예향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진주삼일교회, 지구촌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불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송으뜸,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상호, 이영선, 이완중, 이인성, 이정규, 이주일, 이창준, 이춘봉, 이현구,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용림,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용기, 최은아,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가나다순)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